

소폭인하돼도 생산과잉

피하도록 노력해야

양계가의 입장에서는 계란가격은 앙등되고 있는 반면 사료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이를 기회로 무모하게 사육규모를 확장시켜 생산과잉현상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 견뎌야 하겠다.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1. 개 황

1975년에 들어와 1월과 3월의 각각 배합 사료사격의 인상이 있었으나 기 도입옥수수(\$1.77짜리)가 대략 9.22일로서 전량 사용되고 9.23일 부터는 신규 구매한 태국산 옥수수가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대체적으로 배합사료가격이 하향조정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사료원료사정을 보면 소련의 추가곡물구매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소련은 양곡과 원유의 상호교역을 장기협정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며 미국의 9/1현재 작황을 보면 전월대비 옥수수 2.8%, 수수 3.1%, 콩 1.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소련의 추가 곡물구매설과 관련하여 선물거래시세가 약간씩 상승하고 있다. 배합사료생산을 보더라도 7월에는 생산이 극히 저조하였으나 8월을 고비로 9월에는 특히 양계용배합사료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변화속에서 옥제가격은 하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계란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같은 상태하에서는 계란의 소비가 침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계가의 입장에서는 계란가격은 앙등되고 있는 반면 사료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이를 기회로 하여 무모하게 사육 규모를 확장시켜 생산과잉현상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참고 견디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미국의 사료곡물작황

9.11 미국농무성이 발표한 9.1현재 미국의 소맥 및 사료곡물작황은 <표 1>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전년도 최종수확량과 대비하여 보면 콩이 16.9%, 옥수수 22.3%, 소맥 19.1%, 수수 25.1%, 연맥 9.2%, 보리 23.8%, 아마 21%. 그리고 쌀이 9.4%가 각각 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 8월10일 전후까지 일부지역의 한발로 생산예상량이 감소되고 있는 바 9/1 현재와 8/1 현재 작황예상량을 대비하여 보면 콩 1.0%, 옥수수 2.8%, 소맥 0.2%, 수수 3.1%, 연맥 2.9%, 보리 1.8% 아마 0.8%가 각각 감소예상되고 있다. 에이커당 생산량을 1974년과 대비하여 보면 콩이 14.5%, 옥수수 19.4%, 수수 17.3%, 연맥 4.3%, 보리 18.6%, 아마 27.2%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소맥만이 16.7%의 단위당 생산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옥수수의 에이커당 생산량은 1974/75년도의 71.3부셀에서 85.1부셀로 크게 증가는 하였다하여도 1972년의 97

부셀 1973년의 91부셀에 비한다면 크게 감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옥수수생산량이 1970년의 105백만톤, 1971년의 143백만톤, 1972년의 141백만톤, 1973년의 143백만톤, 1974년의 118.1백만톤과 비교할때 1971, 1972, 1973년도 수준보다 약간 높은 144,5백만톤이 생산될 예정이므로 그다지 수급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으나 소련의 추가 곡물구매가 실현

된다면 추가구매 물량여하에 따라서 가격면이나 공급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0/1현재의 작황이 10/11일에 미국 농무성에서 계속 발표가 있겠으나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9/1현재 작황에 비하여 크게 변동되지 않으리라 기대되는 바이며 또한 미국의 국가의 추곡 풍흉여하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표 1〉 1975. 9. 1 현재 미국 농작물작황 예상

종별	단위 (천)	수확예상량						에이커당 생산량(부셀)			76. 9. 1974
		1975. 8. 1		1975. 9. 1		1974	1975	1975			
		1974	1974 대비%	1974	1974 대비%	8. 1	9. 1	9. 1			
콩	부셀 톤	1,233,425 33,568.9	1,457,672 39,672.0	18.2	1,442,422 39,257.0	16.9	△1.0	23.5	27.2	26.9	14.5
옥수수	부셀 톤	4,651,167 118,144.3	5,849,662 148,587.3	25.8	5,687,248 144,461.8	22.3	△2.8	011.3	87.4	85.1	19.4
소맥	부셀 톤	1,793,322 48,807.1	2,140,631 58,259.4	19.4	2,136,334 58,142.5	19.1	△0.2	37.2	31.1	31.0	△16.7
수수	부셀 톤	628,081 15,953.9	810,936 20,598.6	29.1	785,475 19,951.9	25.1	△3.1	45.1	54.6	52.9	17.3
연맥	부셀 톤	620,539 9,570.0	697,834 10,762	12.5	677,745 10,452.2	9.2	△2.9	46.6	50.1	48.6	4.3
보리	부셀 톤	308,077 6,707.5	388,533 8,459.1	26.1	381,438 8,304.7	23.8	△1.8	37.2	45.0	44.1	18.6
아마	부셀 톤	13,337 338.8	16,272 413.3	22.0	16,140 410.0	21.0	△0.8	8.1	10.4	10.3	27.2
쌀	부셀 톤	114,096 2,328.9	124,813 2,547.7	9.4	124,813 2,547.7	9.4	0	-	-	-	-

3.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가격을 기준하여 한국도착가격을 산출하여 보면 9월 선적분 옥수수가 6.13~7.14까지는 C&F톤당 \$123이었으나 7/22일 소련이 미국으로 부터 약 1천만톤의 소맥 및 사료곡물을 구매하게 되고 또한 8/1 현재 작황이 당초 예정보다 하회하게되자 8/13일에는 \$150대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원인은 소련이 당초 2.15억 톤을 생산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한발로 1.75억톤으로 생산 예상량이 감소되자 이로 인한 추가곡물구매가능성 때문에 국제곡물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부두노조에서는 소련의 추가곡물구매가 1972년도에 소련의 대량곡물구매로 야기되었던 바와같이 '크게 미국의 식품가격을 상승

시킬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련에 대한 곡물선적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8월의 기상이 다소 호전되었기 때문에 시카고의 선물거래가격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9/11에 미국 농무성의 작황발표결과가 전월보다 약간 감소추세에 있고 또한 소련에 대한 추가곡물판매가 양국간의 곡물과 원유교환무역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돌면서 9/15이후 곡물시세는 부셀당 \$312까지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대두박의 국제시세는 10월선적분이 2/20일의 \$250에서 서서히 하락하여 현재 \$211에 선물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소맥의 경우 9월선적분이 6/13일에 \$136이던 것이 8/20일에는 \$189까지 상승하였다가 9/9일 이후 \$170대에 거래되고 있는 바 앞으로 국제곡물시세는 수확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어 기상조건보다는 소련의 곡물추가구

매 수량과 구매시기에 따라 보다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가축사육수의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8월이후 국제곡물시세의 등기현상으로 인하여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배합사료가격을 인하하였던 일본의 배합사료업체가 다시 10월에는 톤당 6,000엔(원화환산 1만원)의 배합사료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의 곡물시세가 안정되면 모르겠으나 톤당 \$140 수준에서 \$150수준이상으로 수입가격이 앙등된다면 9월23일부터 인하 조치한 배합사료가

격은 현재 물량으로 보아 2개월간 밖에 지속되지 못하게 되므로 사료가격안정기금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또한 배합사료가격이 계속 인하된 수준에서 거래되도록 유리한 원료구매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오늘날 국제곡물시세는 약간의 요인에 의해서도 항상 예민하게 변동되고 있으므로 항상 대생산국가의 작황과 대수요국가의 수요변동이 크게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원료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노력에 기대를 거는 바이다.

〈표 2〉 사료 곡물의 국제시세

단위 : \$ / C&F 톤

구분 선적 일 자	옥 수 수				소 맥				대 두 박		
	9	12	3	5	9	12	3	5	10	1	3
6/13	124	119	122	124	136	139	142	144	205	208	210
7/14	123	119	121	123	160	165	164	164	215	219	220
8/13	151	149	151	153	175	182	186	188	220	277	—
8/18	150	149	152	153	178	185	189	190	229	237	245
8/20	151	150	153	154	189	196	200	201	250	237	245
8/22	149	149	152	148	185	191	195	196	227	228	233
8/25	149	148	151	152	182	189	194	194	227	234	241
8/27	146	146	149	150	176	182	187	188	221	228	230
8/29	142	141	144	145	170	176	181	181	220	225	232
9/4	142	139	142	143	174	180	184	184	216	218	221
9/9	139	136	139	—	170	176	180	—	212	212	214
9/10	141	137	140	—	171	176	181	—	213	211	214
9/11	140	137	139	—	170	174	178	—	211	210	212

4. 배합사료생산현황

1975. 1~7월까지의 배합사료생산량을 전년 동기간과 대비하여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8%가 감소추세에 있다. 용도별 구성비를 보면 양계용이 전월까지의 60.8%에서 61.5%로 0.7%가 증가하였으나 그 밖의 양돈용사료는 16.4%에서 16.2%로 젖소용 사료는 17-8%에서 17.5%로 그리고 비육우사료는 3.8%에서 3.6%로 각각 감소되었다. 따라서 기타사료의 구성비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반하여 양계사료의 구성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양계사료는 조사료나 국내 사

료자원으로 대체공급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전업 또는 기업양계가 거의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타사료는 목초 야초 그리고 하곡수확으로 인한 농산부산물의 대체공급이 어느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전년대비 배합사료생산량의 증가율을 보면 양계용 배합사료가 3.3%감소 양돈용 배합사료가 26.3%로 급감하고 있는 반면 젖소사료만이 38.8%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육우사료가 0.1% 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배합사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양계용 사료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3.3%가 감소하였으나 육추용 사료가 3.3% 그리고 육계용 사료가 16.5%생

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8~9월 부터는 늘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는 반면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육계시세가 유리하게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산란계용 배합사료가 8.8%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8월이후의 계란가격이 하락되지 않고 계속 강세 내지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계가는 즐거운 비명을 울리는 반면에 계란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하여 소비자 가격이 너무나 비싸지

게 되면 계란의 수요가 기타부식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짙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계란가격의 호황은 바로 부화육추 수요의 증가를 체적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현상으로 말미아마 9월에 들어서면서 배합사료 수요량의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있다. 예년과 같으면 배합사료 가격 인상시에는 가수요 때문에 배합사료 판매량이 증가하나 9월 23일부터의 가격인하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양계사육수가 증가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표 3〉 배합사료 생산실적 (1~7월분)

단위 ; 톤

월 별	양 계 용				양 돈 용	젖 소 용	비육우용	기 타	계
	육추용	산란용	육계용	소 계					
75. 1	6,934	26,268	4,515	37,3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2	7,261	31,424	5,811	44,496	12,137	11,987	3,423	705	72,748
3	7,019	28,495	6,452	41,966	11,330	14,449	2,933	1,092	71,770
4	6,459	25,456	6,298	38,213	10,954	11,193	1,958	695	63,013
5	7,570	28,074	7,704	43,348	11,972	11,940	2,137	1,071	70,468
6	9,548	31,054	10,209	50,811	10,582	12,120	1,969	682	76,164
7	8,288	26,225	9,388	43,901	9,790	10,415	1,871	741	66,718
계	53,079	196,996	50,377	300,452	78,982	85,345	17,707	6,015	488,501
구성비	10.9	40.3	10.3	61.5	16.2	17.5	3.6	1.2	100.0
1974. 1-7	51,406	216,083	43,232	310,721	107,135	61,488	17,685	10,831	507,860
증가율	+3.3	△8.8	+16.5	△3.3	△26.3	+38.8	+0.1	△44.5	△3.8

5. 주요원료사료시세

9/15 현재의 주요사료시세를 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년 동기대비 대두박 18.1%, 옥수수 배아박이 3%가 하락한 반면 도입옥수수 46%, 국산 옥수수 28.7%, 채종박의 25.5%, 어분 상품 10.2%, 중품 11.6%의 대폭적인 앙등과 임박, 호마박, 맥강, 탈지강 등의 소폭적인 변동은 볼 수 있으며 9/15 현재 시세를 8/15일과 대비하여 보면 임박, 호마박, 채종박, 어분(상품, 중품)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눈에 띄이고 옥수수 등 곡류사료와 강류사료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박류사료 가격이 전월대비 8.5%~24.3%나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박류사료 생산량이 적어지고 있거나 또는 양계사료 생산량이 최근에 와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된다. 만약 생산량증가 즉 수요량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면 앞으로 박류사료 수급에 적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주요 단미사료 시세표 단위 ; 원/kg

사료명	서울지방도매시세			가 격 대비		비고
	74. 9. 15	75. 8. 15	75. 9. 15	75. 9. 15 / 74. 9. 15	75. 8. 15 / 75. 9. 15	
옥수수 (도입)	66.42	97	97	46.0	0	9/23 부터 79. 67월
(국산)	75	100	96.50	28.7	△3.5	
대두박	127	104	104	△18.1	0	
임 박	82.20	76.50	84.50	2.8	10.5	
호마박	82	76.50	83	1.2	8.5	
채종박	52	52.50	65.25	25.5	24.3	
옥수수 배아박	57.50	56	55.75	△3.0	△0.4	
맥 강	41.67	48	42.80	2.7	△10.8	
탈지강	41.30	47	43	4.1	△8.5	
소맥피	20.80	21	21	1.0	0	
어분(상)	128	135	141	10.2	4.4	
어분(중)	107.50	112.50	120	11.6	6.7	

6. 옥수수 구매 및 도입현황

9/23일부터 사용하게 될 옥수수의 구매 및 도착예정은 84,551톤이 구매계약 되었고 9월말까지 34,551톤이 도착 예정이며 잔여 5만톤이 10월 중순부터 입항 예정으로 있다. 구매단가를 보면 태국산은 톤당 \$133~\$135에 구매하였으며 모선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신규 구매한 5만톤의 옥수수는 \$143.94~144.95로 구매가 이루어 졌는 바 현재 구매 확정된 물량으로 거의 11월말까지 사용가능시 된다.

7. 사료 가격 전망

톤당 \$177짜리 옥수수가 대략 9.22일로 떨어지고 9월 23일 부터는 사료가격 안정기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135짜리 태국산 옥수수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옥수수의 고정단가가 톤당 74,205원으로 결정되고 여기에다부두에서 공장 창고까지의 수송비, 퇴비, 포장재대, 하차비, 입고비, 하역감량(0.6%) 그리고 방위세(C.I.F. 가격의 2.5%)가 가산되면 79,674원(서울공장기준)이 사료공장의 도착가격이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원료 가격 상승요인으로는 정부가 연간 거의 100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면서 양축가에게 간접보상조로 공급하고 있는 강류사료 가격의 현실화 여하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시가의 60~70%선까지 판매가격을 만약에 현실화 한다면 배합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양계용 배합사료는 양돈이나 육우사료에 비하여 적게 나타난다고 하나 강류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격차가 약 2.5% 정도 생길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녹사료의 수매가 목표량 2만톤중에서 13,000톤 이상 수집 된다면 약 3.5~4.0%의 녹사료를 양계용 배합사료에 첨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녹사료는 생산지 농가가 그대로 이용한다면 kg당 58원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료공장에 배정하여 배합사료원료화하게 되면 금리를 포함한 사료공장 도착 가격은 83.92원이나 되고 이를 배합사료로 제조하면 15% 정도의 비용(이윤 포함)이 가산되므로 약 kg당 96원이나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국내자원은 생산지 농가가 바로 양계 양돈 및 양토사료로서 이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배합사료화할 경우 당초의 자원개발의 의의보다는 축산물 생산비를 자극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사료메이커는 금차 수매된 녹사료가 현지에서 채회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인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위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동식물성 단백질 사료가격이 상승되고있어 옥수수 가격 하락에 비하여 인하폭을 좁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기료 수송비 등의 상승과 인플레이로 인한 임금의 상승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제조비나 일반 관리비의 상승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산란계초기사료의 예를 들면 3/15 원가대비 9/23이후 8~9% 가격의 원가 하락이 있지 않는가 추측되며 9/초 현재 전국 평균 거래가격에 비하면 3%의 가격차이가 있으며 현재 최고 가격인 톤당 93,000원짜리 산란초기 사료의 경우와 대비하면 7~8%의 가격인하가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26,000 Kcal의 산란계사료일 경우 생산 원가는 톤당 85,600~85,900원이 적정가격이 된다고 보겠으며 양계 사료의 경우 대사에너지 Kcal당 가격은 33원으로 거래되는 것이 적정 수준으로 보아지나 이와같이 하락된 가격 수준의 지속성 여부가 크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므로 양계가 여러분께서는 사육규모의 무모한 증식을 피하고 현재 규모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효율적 경제적 배합사료의 생산과 유통이 양축가에게 보다 수익을 가져다 주고 또한 사료의 낭비를 억제하여 외화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고효율사료 생산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